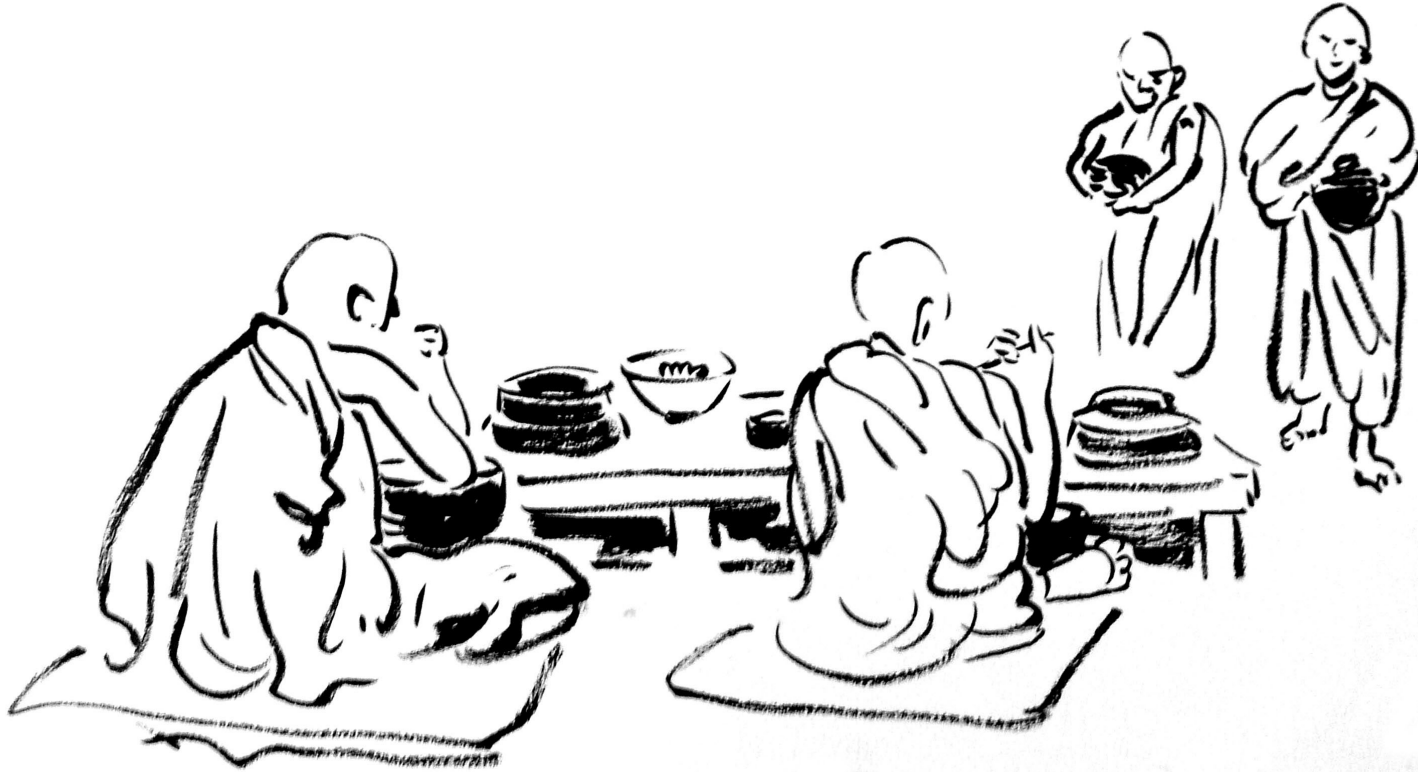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②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깨달음 보았네



미하간디용 수도원에서 (공양장에서) 2015. 1. 23 김근

틸로민로 사원... 왕 상징 흰우산 ‘눈길’

‘우산이 선택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티로민로 사원으로 이동한다. 티(Fit)는 일산(日傘)을 뜻하고, 로(Lo)는 선택의 의미라고 한다. 사원의 불상 옆에 흰 우산이 세워져 있다. 흰 우산은 왕의 상징이었고,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흰 우산을 공중에 날렸다가 땅에 떨어져 우산 머리가 향한 곳에 있는 자가 왕위를 이어 받았다고 한다. 불상의 모습은 우리 나라에서 보았던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나와, 스페, 수련 등 부처님께 올리는 꽃을 사원의 입구에서 1달리에 깔고 있다. 수련 한 묶음을 사서 꽃 공양을 한다. 마음이 향기로 전해지기를.

배가 고프다. 예약된 식당에 들러 인형극을 보며 점심을 먹는다. 식당의 정원에 핀 붉은 꽃 부겐베리아가 낮선 이방인을 맞아준다. 잠시 두 번째 날의 숙소인 미얀마 트레저 리조트 호텔로 이동한다. 근위병이 세워진 왕궁이나 대사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여장을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 열대의 야자수 정원이 아름답다. 다시 대절된 버스를 타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칠기 수공예 공방으로 간다.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가진 장인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여러 명이 한데 모여 순전히 손작업으로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고 있다. 제작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표본으로 세워놓았다.

마누하 사원(Manuha phaya)으로 간다. 옆으로 누운 거대한 불상이 인상적이다. 이어 북쪽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강물이 흐르는 드넓은 이라와디 강변을 전망 할 수 있는 부파야 파고다로 간다. 커

다란 보리수나무가 서있다. 사원의 뜰에 세워진 파고다는 박 모양을 닮은 원통형 제다다. 부(Bu)는 미얀마어로 ‘박’이라는 뜻이다. 두 겹의 연꽃잎 받침대 위로 첨탑이 치솟아 있고, 꼭대기에는 티가 있다. 1975년 지진 때 강에 떨어져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설명이다. 강가에는 배들이 정박해있고, 스님은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다.

불심 대평원 보고 강가서 별을 보다

늦은 오후 쉼산도 파고다로 향한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울이 봉안되었다는 사원이다. 규모가 장대하다.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척 가파르다. 여인들은 다소 힘든 길이다. 손을 잡고 올라온 보람이 무한한 감동으로 변진다. 수많은 사원들이 대평원에 깔려있어 펼쳐져 있다. 장엄하고 광활하고 웅대하다. 이 사원의 정상부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얀마의 바깥이 진정 사원의 도시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면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도 내려가지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내려가고 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저녁을 먹기로 예약된 이라와디 강의 선셋 레스토랑으로 간다. 수레는 흉일을 지나 도로로 나와 속도를 낸다. 말의 크기가 다 다르다. 나이가 다섯 살에서 열일곱 살까지 다양하다. 식당 입구에 아프리카 평원에 사자가 서있는 커다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나무가 있다. ‘마지나무’라고 알려준다. 강가 테이블에 앉는다. 유도화를 닮은 니즈버꽃이 석양의 햇살을 받아 더욱 붉다. 이라와디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고 저 아래 강변의 부파야 파고다는 순금의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도 그렇게

마누하 사원 거대 불상 인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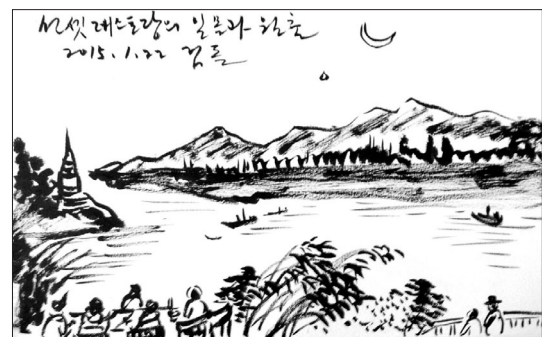
쉼산도파고다 부처님 머리카락 봉안

미하간디용 수도원 오후 불식 수행

우베인 다리 목가적 풍경미 빼어나

꿈계 물들여간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움이며 고요함이다. 어느 샌가 초승달이 나오고, 그 아래 개암바라기가 눈물처럼 반짝인다. 해가 진 다음의 시간은 강물의 수심보다 깊다. 강물과 함께 흐르던 마음은 테이블의 모서리를 돌고 돌며 서로의 가슴에서 머물며 흐르기를 반복한다.

속소로 돌아와 사위로 몸을 푼다. 여행의 즐거움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일상의 굴레를 벗어난 넉넉한 시간의 여유와 자유로움에 있다. 호텔의 야외무대에서 연주되고 있는 실로폰 소리는 적당하고, 조명은 은은



이라와디 강이 보이는 선셋레스토랑. 일몰이 아름답다.

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넘지시 비춘다. 짝주 한 잔씩 곁들여 서로 답소를 나누며 즉석에서 시 낭독으로 분위기를 이어간다. 야자나무숲 위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반짝거리며 그렇게 두 번째 날의 시간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다.

처연토록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

알람이 울린다. 길에 선 자는 또 길을 나서야 한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디사와라사원에 들른다. 어둡고 폭이 좁은 가파른 사원의 내부 계단을 오른다. 광활하게 펼쳐진 사원의 나라 밝아오는 아침이 경이롭다. 저 멀리 북한산을 닮은 산 위로 엄숙한 해돋이가 일어난다. 황금의 나라답게 구름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은 순금의 빛이다. 사원의 사이사이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수많은 열기구들,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비행기를 타러 가야하는데, 아무도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가슴 속에 감실 같은 공간을 두어 작은 불상을 안치한 불상의 이마에 햇빛이 비친다. 들어갈 때 보지 못한 미소가 흰 매화꽃이다. 다시 한 번 뒤돌아본 황금빛 사원이 처연토록 아름답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로 간다. 공파왕 왕조의 수도였던 만달레이는 부처님의 예언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 한다. 현재는 미얀마 제2의 도시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다. 이라와디강 삼각주와 무수한 사원의 평원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른다.

공항에 도착하여 삼천 명의 학생들이 수행하는 마하간디용 수도원으로 향한다. 입구에 학교가 있다.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인상적이다. 학교 건물은 단출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주 우리들을 바라본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곧바로 수도원으로 이동한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동자승과 학생승이 길게 줄을 선 모습 속에서 경건함을 느낀다. 점심공양 후에는 다음날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통해 청빈(淸貧)과 각성(覺醒)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라삼매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즉 적게 먹음으로써 탐욕을 제거할 수 있고, 잠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 상쾌해지며, 복과 수명이 늘어나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당뇨를 비롯해 비만, 동맥경화,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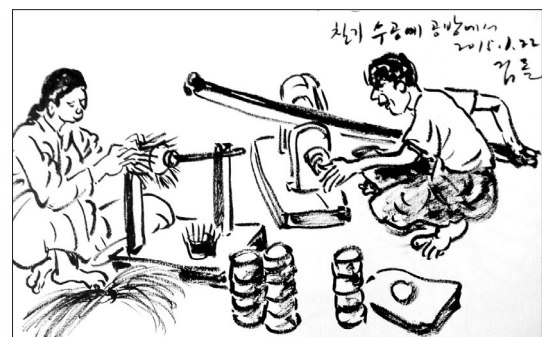
성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탁발 문화에서 비롯된 하나의 계율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목가적 풍경 속에 든 평정 호수 건다

세계 최장의 나무다리 우베인 다리로 이동한다. 미얀마에서는 사람이 공덕을 쌓아 내세에 더 좋은 세상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째는 불탑 불사유, 두 번째가 스님이나 부처에 대한 공양이고, 세 번째가 아들을 낳아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것이다. 우베인다리로 가는 길가에 모내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 칠십 년대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평온해진다. 미얀마의 쌀은 알랑미가 대부분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안남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뜻하는 안남미(安南米)에서 유래되었다. 쌀 모양은 길쭉하고 끈기가 없으며 푸석푸석하다. 6.25전쟁이 끝나고 외국의 구호물자로 들여온 그 쌀이 바로 안남미였다. 미얀마(당시 버마)도 우리에게 쌀을 원조해준 나라였다.

우베인(U Bein)다리는 마하간디용 사원과 타운터만 호수 건너편 만달레이 아마라푸라 사원을 오가는 탁발승을 위해 만들어진 다리다. 1849년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했다고 한다. 길이는 1.2km이고,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 미얀마의 티크나무를 사용했다. 이 다리를 처음 만든 우베인 노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가적 풍경이 아름답다. 어찌면 이 다리가 미얀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리라. 순박하고 겸손하다. 고요하고 깊다. 슬픔이 묻어나는 처연한 아름다움이다. 이 다리가 그렇다. 지금까지 만난 미얀마인이 그렇게 보인다. 호수는 잔잔하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싸움이 없는 미얀마의 사람들,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의 평정에 이르렀다. 호숫가에 고목이 하나 눈에 띈다. 모든 것을 초탈하고 생사 너머의 세계에 있는 모습이 천년만년 마음의 화평을 이룬 노스님을 닮았다.

다리 위에서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는 화가와 나무 열매의 씨로 만든 멜로시라는 팔찌와 목걸이 등을 팔고 있는 풍경을 뒤로 하고 다음의 장소로 이동한다.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각종 야채와 모든 음식이 우리나라 식당 그대로다. 땀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 입맛이 여행 중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준 인상적인 식당이다.



정인들과 함께하는 전통칠기 수예공방 작업 모습.



세계 최장의 나무다리 우베인 다리.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매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감각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할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 ◆ 강의 일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 강의 내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 접수 인원 : 선착순 8명 이내.
◆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 1 강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행복이 가득하 효소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매일 제를 집전하시는 스님
•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수행을 하시는 스님 및 제가불자
• 피로와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 성장기 자녀의 건강이 걱정하신 학부모님
• 수험생이나 입시 준비생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음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차 효소파우더 10g×90호, 60만원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